

#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

---

**홍성수**

(고신대학교, 조교수, 기독교교육학)

- I. 서론
- II.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
- III.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
- IV. 교회의 보편성 이해에 있어서 비가시적 교회, 유기체적 교회 개념의 역할
- V. 결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해방 이전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의 특성과 의의를 살피는 데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교육학은 해방 이후 독립학문으로 교육 및 연구되었기에,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관계를 먼저 논의하고 이어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였던 객안련의 실천신학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객안련을 중심으로 실천된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 과정을 논의하였다. 첫째로,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실천신학에서의 기독교교육이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실천신학 담당 교수 객안련은 설교학, 목회학 같은 전통적인 실천신학 교과목 이외에도 어린이교육, 청년사역, 교육학, 심리학 같은 과목들을 포함시켰다. 둘째로,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종교)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은 성경 관련 교과목 이외에도 스토리텔링, 유치원교육방법들, 게임과놀이 등과 같은 실제적인 특성을 가진 과목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과정은 교육학, 심리학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학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셋째로, 해방 이후 기독교교육학의 분과학문으로의 독립 이전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초기 기독교교육 역할이다. 이 시기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초기 단계로 기독교교육의 실천에 기여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한국 장로교 신학교육의 첫 번째 기관으로 의의를 가지는 것처럼, 한국 초기 기독교교육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키워드:**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실천신학, 기독교교육, 객안련, 교육과정, 기독교종교교육

논문투고일 2022.01.31. / 심사완료일 2022.03.03. / 게재확정일 2022.03.07.

## 1. 서론

기독교교육은 기독교 자체의 역사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독교교육이 교회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는 기독교교육을 통해 생명력을 얻고 대대로 이를 전수하여 왔기 때문이다.<sup>1</sup> 이렇게 기독교교육의 시기를 광범위하게 잡게 되면, 서학을 통해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시점이나, 개신교가 전래된 시점부터 한국 기독교교육의 기원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 초기 기독교교육 기간 중에서 특별히 평양신학교가 설립되어 존속하던 시기인 1901년부터 1938년 사이를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때였다. 신학은 중세 이래 철학과 함께 기독교의 중요한 학문으로 인정받았고, 신학과는 성직자 양성의 중요 기관이었으므로 일찍부터 독립된 학과로 존속해 왔다. 반면에 기독교교육학이 신학처럼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그리고 독립된 학과로 인정받게 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sup>2</sup> 기독교교육학과의 설치는 기독교교육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교육학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기독교교육(학)과가 독립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교육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학이 비록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독립된 학문이나 학과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1 Lewis J. She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이숙종 역, 『기독교교육의 발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5.

2 한국의 경우, 송실대학은 1960년 2월에 기독교교육학과를 신설한 바 있다(송실대학교홈페이지(<https://ssu.ac.kr/> 2022.1.22.18:00접속)),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신학과 안에 기독교교육 전공 설치인가는 1965년 1월에 득하였는데, 기독교교육과로 독립되어 인가받은 것은 1980년 10월이다(장로회신학대학교 홈페이지(<http://www.puts.ac.kr/> 2022.1.22.18:15접속)). 충신대학교는 충교신학교 시절인 1961년 3월 종교교육과 4년 과정이 설치되었고, 1973년 12월 문교부로부터 종교교육과 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 1월 종교교육과를 기독교교육과로 변경하였다(충신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ongshin.ac.kr/> 2022.1.22.19:00접속)). 고신대학교는 1976년 12월 기독교교육과를 신설하였다(고신대학교홈페이지(<http://home.kosin.ac.kr/> 2022.1.22.20:23접속)). 이렇듯 한국에서 기독교교육이 독립된 학과를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를 전개한 시점은 1960년대 이후이다.

고 해도, 여전히 한국 선교 초기에서부터 기독교교육은 실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교초기부터 기독교교육은 기독교학교, 교회와 주일학교, 평양 장로회 신학교와 같은 주요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시기가 한국에서 독립된 기독교교육학 내지는 기독교교육(학)과가 성립되기 이전임을 감안하여, 먼저, 기독교교육과 실천신학의 관계를 간략히 논의하므로 평양신학교의 기독교교육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을 것이다. 다음으로,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을 살펴볼 것인데, 당시 평양신학교 실천신학 담당이 객안련이었으므로, 그의 교육관과 교육실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 교과목의 기독교교육적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독교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들과 평양신학교의 기독교(종교)교육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 II.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학이 독립 분과로 분화하기 이전에는 기독교교육을 신학의 한 분과로 이해하였고, 그 중에서도 실천신학에 속한 한 가지로 인식하였다. 실천신학이란 신학 하위 분과에서도 실천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신학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분야이다. 예컨대 성경신학, 조직신학(교의학), 역사신학(교회사)과 함께 실천신학(봉사신학)은 4대 신학 분야를 형성하는데, 실천신학 범주에는 기독교윤리학, 설교학,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선교학 등을 위시하여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대에서 이들 제 분야들 가운데 특히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등은 이미 독립된 학과로 분가하여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sup>3</sup>

3 임영효, 채경락은 21세기에 이르러 전통적으로 성경신학, 교의학, 역사신학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도가 이제는 실천신학 쪽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고, 실천신학 하위의 한 영역에 머무르던 분야들이 하나의 독립된 학과로 발전하는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는 현장의 필요가 크게 강조되는 현 시대적 특성에 따른 변화이고 이것이 실천신학에 대한 비중을 크게 높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임영효·채경락, “고신 실천신학 70년의 회고와 전망”, 『고신신학』제18권(2016), 247-248.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실천신학에 대해 그리고 특히 기독교교육학 분야에 대해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강용원은 기독교교육학의 성격에 대하여, 신학의 경우처럼 계시적 지식을 중시함과 동시에 교육학의 경우처럼 귀납적 지식도 받아드려야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4</sup>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교육학은 기독교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소유하는 신앙의 표현과 성숙에 관계된 교육적 노력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기독교교육학이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그런 차원에서 실천신학의 한 영역에 관계한다고 보았다.<sup>5</sup>

이와 같이 기독교교육이 실천신학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 한국 선교 초기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비록 독립된 기독교교육학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실천신학을 통해서 기독교교육 활동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양신학교의 추가 교육과정에는 신학 이외에도 기독교(종교)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에, 평양신학교가 기독교교육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은 1902년 9월 내한하여 1941년 7월 일본에 의해 강제 추방되기까지 40여년을 한국교회와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선교사, 목사, 교수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많은 사역을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추어 그의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4 강용원,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부산: 고신대학부설기독교교육연구소, 1992), 30.

5 기독교교육학이 독립 학문으로 발전하는 것에 관하여, 강용원은 기독교교육학이 신학을 소홀히 하면서 급속히 분리된 학문으로 나아감에 의하여 기초가 약화되었고, 이론과 실천이 혼재되었고, 기독교교육학이 교육학과 뒤섞이게 되므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기본조차 흔들리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독교교육학은 실천신학의 중심적인 교과목 또는 실천신학의 조직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용원,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29-33.

## 1.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로서 곽안련

곽안련은 한국 선교 40여 년 기간 상당한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호우에 따르면, 곽안련은 51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그 중 42권은 한글, 7권은 영어, 2권은 스페인어로 쓰여 졌다. 이들 책들은 성경관련 용도와 실천신학 교재용으로 저술되었다. 한편 곽안련은 신학지남에 200여 편의 논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sup>6</sup> 특히 1925년 발간된 그의 『설교학』과 『목회학』은 여러 판을 거듭하여 출판되었고, 1970년대까지 한국의 신학교에서 사용되었던 실천신학의 유일한 교재였다. 이것은 그만큼 실천신학 분야가 한국에서 성장이 더뎠다는 점이기도 하면서, 곽안련의 공헌도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례이다.<sup>7</sup>

곽안련은 1908년 5-6월 사이 평양신학교에서 첫 강의를 한 바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맡은 과목이 설교학이었다.<sup>8</sup> 본래 당시 선교부는 곽안련을 평양신학교 교수로 일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곽안련 자신이 이론 연구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천적 활동에 가치를 두었던 탓에 그의 교수직은 얼마간 늦추어지게 된다. 이는 곽안련 자신이 이론 연구에 치중하면서 교수 활동을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의 선교 초기부터 순회 전도와 교회 개척 그리고 목회사역을 통해 전도자요 목사의 길을 걷는 쪽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내한한 초기 20여년은 현장 사역자로, 그 이후 20여년은 신학교 교수로 한국의 선교 현장과 교회 그리고 한국 장로교 신학교를 위하여 두루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sup>9</sup>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육과정은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체계화

6 이호우,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의 목회와 신학 정신: 한국교회가 기억하는 그의 공헌과 유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식』 제41권(2000), 4-5.

7 정성구는 198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실천신학 영역은 다른 신학 영역에 비해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1900년대 초에 쓰여진 곽안련의 실천신학에 거의 의존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정성구, 『실천신학개론』(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0), 4-5.

8 곽안련은 1902년 9월 내한한 이래 20여 년간 경기, 강원, 평양을 두루 다니면서 150여개 교회를 설립 목회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었고, 1906년부터 서울 승동교회 담임목회 사역도 하였다. 그러다가 1908년 평양신학교 강사직을 맡은 것이다. 이호우, “곽안련의 목회와 신학 정신”, 4.

9 정장복, “한국교회 최초의 실천신학교수 곽안련(Charles Allen Clark)의 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 『장신논단』, 제22권(2004), 222-223. 이호우, “곽안련의 목회와 신학 정신”, 4-5.

되던 1916년부터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성경관련 교과목 중심으로 신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다.<sup>10</sup> 그러다가 1916년부터 전임교수제가 도입되었고, 교과목도 증가되어 실천신학 과목들이 편성되었다. 이 당시 전임 교수들은 마포 삼열(교장, 신학, 교회정치, 성례와 선교), 이눌서(조직신학), 왕길지(교회사), 어도만(구약), 라부열(신약), 곽안련(실천신학)이었다.<sup>11</sup>

1916년에 평양신학교가 전임교수제를 도입하면서 곽안련은 실천신학 담당 전임교수가 되었으나, 이때는 그가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며 목회와 교수직을 병행하였으므로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곽안련의 목회와 교수직 병행은 1916년 당시에도 여전히 평양신학교가 5년제 과정으로 매년 3개월씩 학교수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1920년 이후 평양신학교가 1년 2학기제로 학제를 변경하고, 5년제 과정을 3년제 과정으로 개편하면서 곽안련이 평양신학교 교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간의 목회직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평양으로 이사하였고, 신학교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sup>12</sup>

곽안련이 맡았던 설교학과 목회학은 평소 그가 실천에 가치를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그에게 최적의 교과목이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의 교수와 목회 활동은 교육적 특성 곧 기독교교육적 특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천신학이 이론적인 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학문과 목회 및 교회 현장을 연결해주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교육학의 응용학문적 성격과 유사한 특성을 엿볼 수 있고, 이 점에서 평양신학교와 곽안련의 기독교교육적 특성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곽안련의 실천신학에서 보다 더 기독교교육적 특성을 엿볼 수

10 1916년 이전까지 교육은 어도만(복장로회), 배유지(남장로회), 마로덕(남장로회), 라부열(복장로회), 업아력(캐나다장로회) 등이 주로 구약, 신약, 교회사 등을 가르쳤고, 언더우드(복장로회)가 심리학을 가르쳤다.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115-116.

11 김광수안광국 편,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71), 66.

12 곽안련은 1922년에 평양으로 이사하였는데, 이는 1902년 그가 내한한 이래 20년이 지난 때이다. 이호우, “곽안련의 목회와 신학 정신”, 4. 그러므로 그는 평양신학교의 교수 사역을 전담하기 전까지 현장 경험을 충분히 했다는 점에서 실천신학 교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이 된다. 이호우, 『초기 내한 선교사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29-130.

있는 것은, 평양신학교 교육과정의 5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되면서, 그가 실천신학 교과목 가운데 기독교교육 특성이 드러나는 과목들을 추가 개설했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우에 의하면, 광안련은 기존의 설교학과 목회학, 교회정치와 권징과 같은 실천신학 교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였다. 이들 과목들은 어린이교육, 청년사역, 사회봉사, 개인봉사, 기독교심리학, 어린이심리학, 주일학교조직, 예배규칙서 등으로, 주로 기독교교육 특성을 지닌 교과목들이었다.<sup>13</sup>

이와 같이 광안련이 기독교교육 성향이 다분한 교과목들을 개설하였던 까닭은 그가 실천신학 담당 교수이기도 하였으나, 목회 현장에서 많은 실제적 경험을 통해 교육적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정정숙은 1983년의 「신학지남논문총색인」(1918-1983)을 근거하여 신학지남에 게재된 교육 논문을 정리한 바 있는데, 해방 전 신학지남에 게재된 교육논문들은 어린이 설교 4편, 종교교육 1편, 주일공과 25편, 주일학교교사 9편, 주일학교조직 1편, 신학교교육과정 1편, 기독교교육 관련 자료 41편 등이다. 이들 자료들 중 상당수가 광안련이 게재한 것들이다.<sup>14</sup>

## 2. 광안련의 교육관

광안련에게 교육은 교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때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의 교육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했다. 이제 교육의 필요성과 목사의 교육적 책임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sup>15</sup>

### (1) 교육의 기본적 필요성

13 이호우, 『초기 내한 선교사 광안련의 신학과 사상』, 130.

14 정정숙, “신학지남과 한국교회의 교육”, 『신학지남』제65-1권(1998), 42-43.

15 그의 저서 『목회학』에는 종교교육에 대한 장이 따로 할애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목사가 가져야 할 교육관과 실천에 대해 간략하지만 의미 있는 조언을 하였다. 비록 이것이 1925년 당시의 조언이지만, 현재 한국 교회교육 현장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초판은 1925년에 출간되었다. 광안련, 『목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35-246.



곽안련은 마 28:19을 교육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교육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그는 루터나 칼빈 등 개혁자들의 성공의 열쇠는 교육에 있었다고 진단하였고, 당시 반종교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구교의 핵심 인사인 이그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와 같은 이들 역시 그들의 교육 실천으로 말미암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각지에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구교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교육을 견실하게 할 때에 교회는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같은 선상에서 곽안련은 당시 한국의 선교 초기에 교회가 지속적인 부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한국 교회에는 사경회, 부흥회 같은 교회 부흥의 중요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단지 전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고, 그 성격상 다분히 교육적이었다. 곧 전도와 교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신학적 혹은 선교적 관점에 국한하여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관점에서 내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또한 곽안련은 교육의 범위를 유년에게만 제한하지 말고, 장년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흔히 장년들은 주일과 수요일 기도회 같은 집회 때 설교를 통해 교육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장년들 역시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교회가 위치한 해당 마을 또는 도시의 비신자들도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곽안련은 교육의 대상을 아동이나 성인기 이전의 학생들로 제한하지 않고, 전 연령에 걸친 사람들에게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기독교교육의 대상도 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종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범교육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 (2) 목사의 교육적 책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곽안련의 생각은 목사를 통한 실천적 적용으

16 곽안련, 『목회학』, 235.

17 곽안련, 『목회학』, 236-237.

18 곽안련, 『목회학』, 238.

로 나아간다. 여기서는 궤안련의 교육에 대한 견해 가운데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을 살피면서 그의 교육관을 논의해 보자. 가정과 교회는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장이 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 두 기관에 대하여 교육적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이를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 1) 가정교육

목사는 가정교육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때 목사는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종교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 이처럼 궤안련이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주일학교 교육만으로는 충실한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는 한 주에 15분 가량만 종교교육에 할애할 수 있기에, 출석 확인과 여타 순서를 빼고 나면 반원들에게 종교교육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시간이 15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학교에서 수학이나 사회 등의 교과목에 대해 한주 15분만 수업하게 될 경우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한주에 15분만 하는 것은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기도, 성경, 주기도문, 식사기도 등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9</sup>

### 2) 교회교육

궤안련에 의하면, 교회교육에 있어서 설교는 대표적인 교육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단회적인 설교를 하지 말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나 일관된 성경 본문 설교를 하여야 한다. 또한 목사는 사경회 교과목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신선하게 구안할 필요가 있다. 사경회 교육과정은 성경 관련 교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5-6년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교과들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전도법, 교육학, 심리학, 설교학, 교회헌법 등을 사경회의 과목으로 다루는 것이다. 또한 사경회 교육을 일방적인 강의위주로 하기 보다는 토론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궤안련은 사람

19 궤안련, 『목회학』, 238-239.

은 반응을 통해 배운다는 심리학적 상식을 거론하면서 토론은 많은 반응을 일으킬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 강의보다 더 많이 배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0</sup>

곽안련은 목사의 교육적 책임의 범위를 넓게 보았다. 즉 목사는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에서만 아니라, 기독교 밖의 영역에 대해서도 교육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는 자기 구역 안의 모든 신자, 불신자, 학생, 그 밖의 일반인에게 책임이 있는 줄로 알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변사회를 교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sup>21</sup> 이를 위해서 그는 목사가 담당교구 내의 신자 교육은 물론이고 비신자의 교육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줄만한 지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목사가 민중의 계몽에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견해이며, 곧 시민 교육에 관하여 목사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곽안련은 가정교육,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육, 교회 부속학교 교육, 그리고 공립 학교와 비종교학교에 대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全) 방면에 있어서 목사가 기독교(종교)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부단하게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곽안련의 이와 같은 목사의 교육적 책무에 대한 폭넓은 생각은 16-17세기 ‘목사의 나라’와 같이 여겨졌던 네덜란드 사회를 연상케 한다.<sup>22</sup>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은 목사후보생들이기에 목사의 교육적 책무에 대한 곽안련의 이러한 인식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곽안련은 그의 교육관을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기독교 복음으로 봉사하고자 했던 것이다.

### 3.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실천신학 및 기독교(종교)교육 과정

20 곽안련, 『목회학』, 239-243.

21 곽안련, 『목회학』, 246.

22 곽안련, 『목회학』, 238-246. 조성국은 16-17세기 네덜란드 사회를 주도한 것은 칼빈주의였고, 칼빈주의 정신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하면서, 교육활동 전반과 학교에 대한 감독은 교회와 목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크라우트호프(Kruihof)는 네덜란드의 기독교교육역사를 기술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Domineesland’(목사의 나라)라는 용어로 네덜란드의 그러한 교육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조성국, 『기독교학교교육의 역사와 철학』(서울: 생명의양식, 2019), 42-44.

평양 장로회 신학교 초기 교육과정은 매년 3개월씩 5년을 공부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객안련에 의하면, 신학교의 처음 10여 년간 수업은 일 년에 3개월 반 정도였고, 연중 나머지 기간에 학생들은 각각 맡은 교구에서 사역하면서 과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23</sup> 1916년 편람은 5년제 교육과정인데, 매년 학기는 두 학기로 되어 있고, 학기당 6주, 두 학기 총 12주로 짧았다.<sup>24</sup> 1920년에 이르러 5년제에서 3년제로 변화되면서, 학기도 봄과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매년 7개월여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발전된 모습을 나타냈다.<sup>25</sup> 그리고 1925년 라부열 교장 때부터는 일 년 2학기제가 일 년 3학기제로 변경되었다.<sup>26</sup>

#### (1)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실천신학 교육과정

1916년과 1928, 1931년 평양신학교 편람을 통해 당시 실천신학 교육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표1〉 1916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실천신학 교육과정(5년제)

23 객안련, 『목회학』, 166.

24 1916년 신학교 일정은 3월 2-3일 입학시험, 3월 4일 개강, 4월 25-26일 시험, 4월 26일 첫 번째 학기 종료, 4월 28일 두 번째 학기 시작, 6월 13-14일 최종 시험, 그리고 6월 16일 졸업식에 이르는 2학기 총 3개월 반의 기간으로 되어 있다.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 사이에는 하루 휴식일이 있다고 언급한다.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16), 3.

25 박화경,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학의 형성과 발전”, 『기독교교육정보』제31권(2011), 105-106. 장로회신학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의 편,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113-119.

26 “一. 今年부터 一年三學期制를 實施하야 四月一日에 開學이온바 新入志願人中에 落第자가 六인 入學者가 三十二人이오며 二學年生 二十三人 三學年生 三十 合計 八十五이 第一學期를 修學했스오며”. 라부열, “신학교소식”, 『신학지남』제8-3권(1926), 158-159

27 교육과정 표는 1916년, 1928년, 193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영문 편람을 참고하여 실천신학 교과목을 정리하였다. 1928년과 1931년의 교육과정은 3년제 매년 3학기로 진행되었고, 두 교육과정은 동일하다.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25-26.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Seoul: Y. M. C. A. Press, 1928), 16-17.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Seoul: Y. M. C. A. Press, 1931), 16-17.

	1학기	2학기
1학년	설교학, 채플실습, 구약개론 (4) <sup>28</sup>	설교학(5)
2학년	설교학(5), 심리학(3)	윤리학(5)
3학년		설교학(5), 교회정치와 성례(5)
4학년	교회훈련과예배지침(4)	목회학(3)
5학년	신학, 직분과성령의사역(7) <sup>29</sup>	목회학(5), 교육학(3), 현대선 교역사(3)

〈표2〉 1928, 193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실천신학 교육과정(3년제)

	1학기	2학기	3학기
1학년	설교학(3) 설교실습(1)	설교학(2) 개별사역(Personal Work)(2) 설교실습(1)	심리학(1) 설교실습(1)
2학년	설교학(3) 설교실습(1)	교회정치(2) 설교실습(1)	아동심리학(2) 교육학 (Pedagogy)(2) 설교실습(1)
3학년	주일학교조직(2) 목회신학(3) 설교실습(1)	목회신학(2) 기독교사회학(1) 설교실습(1)	예배지침(1) 제자도(2) 청소년사역(1) 설교실습(1)

평양신학교 교육과정은 대부분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교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성경 각 권에 대한 교과들을 다수 개설하여 성경을 익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sup>30</sup> 1916년 평양신학교 수업 시수는 주당 29-34시수였고,

28 설교학, 설교실습, 구약개론 교과의 시수 합이 4이다. 구약개론은 실천신학 분과는 아니지만, 1916년 영문편람에 설교학, 설교실습, 구약개론 시수 합을 4라고 하면서 함께 표시되어 있다.

29 신학과 직분과 성령의 사역(Office and Work of Holy Spirit) 교과 합이 7시수이다.

30 평양신학교의 교육목적은 “진실로 성경을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적 지식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과 행동의 신적 규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참으로 믿고, 적절하게 이해하고, 성심껏 사랑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열렬하게 이것의 완전함과 단순함 곧 거기서 제시하는 구속함의 복음을 설파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평양 장로회

그 중에 실천신학은 4-11시수를 차지한다. 1928년과 1931년 수업 시수는 주당 24-25시수였고, 그 중에 실천신학은 2-6시수를 차지한다.<sup>31</sup> 그런데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 교과목은 설교학, 설교실습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목회학, 예배, 성례 등을 다루어 주고 있다. 실천신학의 이들 교과목들은 교회 현장 혹은 목회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천적인 것들이었고,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또한 실천신학이 신학을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는 응용학문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는 다분히 응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학의 속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객안련은 이들 실천신학 제 교과목 가운데 심리학과 교육학 같은 기독교교육학에서 다루는 교과목들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실천신학 교육과정에서 비록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교육학 관련 교과를 개설하므로 기독교교육에 대한 초기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sup>32</sup> 이는 목사에게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천신학 교과목들을 대체로 설교학, 목회학, 설교실습 중심으로 하면서도 심리학, 교육학 교과목을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평양신학교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로 기독교종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신학교의 목적이다."라고 하여 성경연구에 상당한 강조를 두고 있다.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28)*, 7-8.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31)*, 7-8.

- 31 실천신학 교육과정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28년과 1931년 교육과정의 경우 1학년 3학기는 심리학(1), 설교실습(1)이 실천신학으로 2시수이고, 3학년 1학기는 주일학교조직(2), 목회신학(3), 설교실습(1) 등 총 6시수이다.
- 32 기독교교육 관련 교과목은 1916년에는 2학년 1학기 심리학(3), 5학년 2학기 교육학(3) 등이고, 1928년과 1931년에는 1학년 3학기 심리학(1), 2학년 3학기 아동심리학(2)과 교육학(2), 3학년 1학기 주일학교조직(2), 3학년 3학기 청소년사역(1) 등이다. 이는 1916년에 비해 1928년과 1931년이 과목 수가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과목 수 증가는 새로운 과목의 추가라기보다는 본래 과목의 세분화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1916년 심리학(3)을 그 이후 심리학(1)과 아동심리학(2)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렇므로 1916년에 심리학과 교육학 두 교과목이었던 것이 1928년과 1931년에는 이에 더하여 아동심리학, 주일학교조직, 청소년사역 등으로 다섯 교과목이 되었고, 시수는 6시수에서 8시수로 약간 증가했다.

(2) 평양 장로회 신학교 기독교(종교)교육과정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추가 교육과정을 설치 적용하였는데, 이때 교육과정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기독교종교교육과정(Course in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봄철신학과정(Spring School of Theology), 그리고 대학원과정(Post-Graduated Course)이다. 기독교종교교육과정은 매년 4월 중에 실시되었고, 봄철 신학과정은 매년 5월에 실시되었다.<sup>33</sup>

기독교종교교육 과정은 각 한 달씩 5년에 걸쳐 개설되었다.<sup>34</sup> 이 과정의 목적은 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주일학교와 청소년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리더십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대상자들로서는 목사, 조사 그리고 신학교 학생이다. 신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그들이 신학교 정규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때에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sup>35</sup> 그리고 전국 각 장로회 소속 주일학교 서기도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본 과정을 주일학교 서기에게도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평양신학교는 주일학교 교육 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천신학 담당 객안련이 아동심리학을, 허대전이 조직학, 교수학, 주일학교 찬미가를, 탐손이 종교교육학과 이야기 과목을 가르쳤다.<sup>36</sup> 본 과정을

33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28)*, 18-21.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31)*, 18-19.

34 1928년 편람에는 한 달씩 5년에 걸치며 매년 4월에 시행되는 과정이라고 소개하는데 반하여, 1931년은 3년 과정으로 한 번에 한 달 반 기간이고 매년 4월에서 5월 기간에 시행된다고 하여 차이를 보여준다. 1931년 과정이 1928년의 5년을 3년으로 축소하게 되므로 1928년과 1931년 교육과정은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과목이 추가 되거나 시수가 변화된다.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28)*, 18.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31)*, 18.

35 1931년 편람의 경우 1928년 것에 비해 “한국 주일학교 협회 성경통신과정 졸업 증서가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된다. 목사들과 신학교 학부생 그리고 성경학원 졸업생들에게는 예외이다. 신학교 졸업생들은 만약 그들이 1922년이나 그 이후에 졸업했다고 하면 5년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이 설명은 본 과정이 모두에게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주일학교협회에서 실시하는 성경통신과정을 졸업하여야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목사와 신학교 재학 중인 자는 이미 기본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아서 입학이 허가되었다. 한편 1922년 이후를 기점으로 5년 과정 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교육과정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31)*, 18.

36 장로회신학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191-192. 박화경, “대

이수하는 경우에 신학교 졸업생에게는 수료증, 그 외의 이수자들에게는 이수증서가 수여된다.<sup>37</sup> 기독교종교교육 5년과 3년 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다.<sup>38</sup>

〈표 3〉 평양 장로회 신학교 기독교종교교육 5년 과정(1928년)<sup>39</sup>

1년차	(1) 아동심리(5시간), (2) 교육학(Pedagogy 5시간), (3) 조직(Organization 5시간), (4) 디모데서신서(2시간), (5) 성경개요와 교회역사(1시간) (이것은 신학교 학생들과 목사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2년차	(1) 신입및초보자를위한특성화(Specialization for Beginners and Primary, 5시간), (2) 흑판과도표작성(Blackboard and Chart Work, 5시간), (3) 이야기말하기(Story Telling, 5시간), (4) 구속계시의역사(2시간), (5) 성경개요와교회역사(1시간)
3년차	(1) 3학년및중급자를위한특성화(Specialization for Juniors and Intermediates, 5시간), (2) 주일학교복음전도(Sunday School Evangelism, 5시간), (3) 유치원교육방법들(Kindergarten Methods, 2+1/2시간), (4) 가르침에서실제사역(2+1/2시간), (5) 갈라디아서(2시간), (6) 성경개요와교회역사(1시간)
4년차	(1) 청소년을위한사역-상급자와하급자(Senior and Young People, 5시간), (2) 프로젝트와문제교수(Project and Problem Teaching, 5시간), (3) 게임과놀이(5시간), (4) 빌립보서(2시간), (5) 성경개요와교회역사(1시간)
5년차	(1) 성인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of Adults, 5시간), (2) 가장행렬과특별프로그램들(Pageants and Special Programs, 5시간), (3) 단계별사회봉사및주간성경사역(Graded Social Service and D.V.B.S. and Weekday Bible Work, 5시간), (4) 아모스서(2시간), (5) 성경개요와교회역사(1시간)

〈표4〉 평양 장로회 신학교 기독교종교교육 3년 과정(1931년)<sup>40</sup>

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학의 형성과 발전”, 106.

37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1928*, 18.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1931*, 18.

38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1928*, 18-19.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1931*, 18-19.

39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28)*, 18-19.

40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31)*, 18-19.



1년차	(1) 일반심리학(2시간), (2) 아동심리학(3시간), (3) 교육학(Pedagogy, 3시간), (4) 종교교육의조직화(Organization of Religious Education 3시간), (5) 청소년사역(2시간), (6) 성경과 교회사개요(3시간), (7) 디모데서신(2시간)
2년차	(1) 1, 2, 3학년을위한특성화(Specialization for Beginners, Primary and Juniors, 3시간), (2) 실제적교수, 프로젝트와문제교수(Project and Problem, with Practice Teaching, 2시간), (3) 이야기말하기(Story Telling, 3시간), (4) 칠판과도표작성(Blackboard and Chart Work, 2시간), (4) 교육에서놀이(Play in Education, 3시간), (5) 유치원교육방법들(Kindergarten Methods-Hand Work, 2시간), (6) 갈라디아서와빌립보서(3시간)
3년차	(1) 중급자, 상급자와하급자를위한특성화(Specialization for Intermediates, Seniors and Young People, 3시간), (2) 성인을위한종교교육(2시간), (3) 교수관리(Supervision of Teaching, 2시간), (4) 주일학교복음전도(Sunday School Evangelism, 3시간), (5) 단계별사회봉사(Graded Social Service, 1시간), (6) 특별프로그램(2시간), (7) C. E.와보이스카웃사역(C. E. and Boy Scout Work, etc., 2시간), (8) 고린도전서(3시간)

기독교종교교육이 5년 과정에서 3년 과정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두 경우 공히 매주 시수는 18시간이다. 그러나 5년 과정일 때에는 매해 4월 한 달 기간 개설되었던 반면, 3년 과정일 때에는 매해 4월에서 5월 중 1개월 반의 기간으로 다소 길게 개설되었으므로 교육 시간은 기간이 축소됨에도 어느 정도 보충되었다. 5년에서 3년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sup>41</sup>

첫째로, 3년제의 1년차 과정에서 아동심리학 5시수가 이후에 일반 심리학 2시수와 아동심리학 3시수로 나누어져 개설 된 것, 교육학과 종교교육조직화 교과가 2시수 줄어들고, 청소년사역이 2시수 추가된 것, 성경개요와교회역사가 1시수에서 3시수로 2시수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sup>41</sup> 이 변화는 1931년 편람에 소개되는 종교교육과정 3년제를 기준으로 하고 1928년 편람 5년제 과정과 대비하여 차이가 나는 것들을 1931년 편람의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해서 서술한 것이다.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28)*, 18-19.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1931)*, 18-19.

둘째로, 3년제의 2년차 과정에서 교육과정 변화는 5년제 과정에서 특성화 교과 2년차와 3년차 일부를 하나로 묶고 시수는 3시간으로 축소한 점, 칠판과도 표작성을 5시수에서 2시수로 축소한 점, 놀이교육을 5시수에서 3시수로 축소한 점, 5년제 과정에서는 매년 성경개요및교회사 교과가 1시수씩 개설되었으나 3년제 과정에서는 1년차에서 본 교과가 3시수로 배정되고, 2년차와 3년차 과정에서는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3년제의 3년차 과정에서 교육과정 변화는 5년제에서는 중간수준(Intermediates)까지 있던 것을 그 아래까지로 그 수준(Seniors and Young People)을 확대한 점, 성인종교교육 교과(2시수)와 교수관리(2시수) 교과, 특별 프로그램(2시수) 등이 추가 된 점, 고린도전서(3시수)를 추가로 넣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 기독교종교교육과정은 각 대상들을 특성화하는 작업, 일반심리, 아동심리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학습자 이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교수법, 놀이교육 같은 교과는 교육과정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생생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실천적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이 종교교육과정이기예 성경개요와 교회역사에 대한 교과를 편성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게 한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종교교육과정은 실천신학 담당 객안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응용적이고 실천적인 교과목들로 구성되었다. 객안련은 1926년 「주일학교교수법」이란 책을 저술하여 교회교육 및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본서에서 교수가 아닌 예들을 두 가지 거론하는데, 단순히 학생이 모르는 것을 교사가 알려주는 것, 교사가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에게 외우게 시키는 것 등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조선의 교육방법이었으나, 객안련의 시각에서는 학생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교과의 내용만 집어넣는다는 점에서 참된 교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객안련은 교사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의 일부분 혹은 전 부분을 학생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응용하여 전달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 오게 할 때에 참된 교수 활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sup>42</sup>

평양신학교는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서 추가 교육과정으로 종교교육과정을 편성한 점, 그리고 목사과 신학생, 조사는 물론 그 당시 각 장로교회 주일학교 서기에게도 본 과정을 이수 가능케 하므로 한국 장로교회 전반에서 기독교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평양신학교의 기독교교육이 지닌 의의를 볼 수 있다.

#### 4. 한국의 기독교교육학 분과 이전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 특성

한국에서 기독교교육(학)과<sup>43</sup>는 해방 이후 주로 신학대학 내 신학과와 병행하여 설치 발전되었다. 조성국에 의하면, 신학교의 설립이 근대적인 세속화에 대응하여 개혁신의 내지 복음주의 신학교육을 통해 목사양성을 도모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기독교교육(학)과의 설립은 근대사회와 교육의 발전이란 상황 속에서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감당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sup>44</sup>

한국교회가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주선애는 1960년대를 기독교교육학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학자들에 의해 한국에 이식되었다는 뜻으로 ‘학문적 이식기’라고 하였고,<sup>45</sup> 강용원은 1960-1980년 사이 기간을 한국에서 기독교교육학에

42 광안련, 『주일학교교수법』, 제4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4), 9-15. 본서의 초판은 1926년 10월에 나왔으므로, 당시 평양신학교와 일선 교회와 주일학교 교사 교육용으로는 적절한 교재가 없던 차에 유용한 교재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43 대학 학부의 기독교교육과는 사범계열에 속하여 교사자격증(2급)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독교교육학과로 칭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부인 경우 ‘기독교교육(학)과’로 표기한다.

44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역사적 발전양상(1946-2016)”, 『고신신학』제18권(2016), 283-284. 그런데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에서 분화 발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의 전통에서는 교육신학이고, (일반)교육학의 전통에서는 종교(기독교)교육학이 된다.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역사적 발전양상(1946-2016)”, 284.

45 주선애, “한국기독교교육30년회고”, 『교육교회』제159권(1989), 941.

대한 연구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비기’라고 하였다.<sup>46</sup> 조성국에 의하면, 한국에서 기독교교육 연구는 1960년대 김득용이 기독교교육을 철학, 목적,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기독교교육(학)과가 신설되고, 전공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독교교육학의 발전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sup>47</sup>

강용원은 한국의 여러 대학의 기독교교육(학)과 학부 교육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각 학과 교육과정의 공통된 특징은 신학, 기독교교육학(교회교육), 교육학, 심리(상담)학 및 교직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신학 분야에서는 기독교교육(학)과가 성경교육을 담당하는 기독교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신구약개론, 성경해석학과 주로 실천신학 교과목들인 교회교육, 성경교수법, 청소년교육 등을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삼고 있다.<sup>48</sup>

앞서 제시한 평양신학교의 기독교교육 관련 교육과정에서 교육학, 청소년사역, 유치원교육방법들, 학년특성화 교과목들 그리고 다수의 성경관련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학은 아직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는 대신에 일반심리학과 아동심리학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의 1931년 기독교교육이었고 이는 초보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당시 신학생들, 일선 교회 지도자들과 주일학교 서기가 일 년에 1개월 반 정도 기독교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런 교과들은 실제 교육현장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의도로 편성된 것들이다. 90여 년 전이었음에도, 유치원교육방법들, 이야기말하기, 프로젝트와교수, 그리고 교육에서놀이 등과 같은 교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음을 볼 때에, 평양신학교의 기독교종교교육은 아동 이해에 있어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디모데 서신과 고린도전서를 기독교(종교)교육 과정 안에 넣은 것은 목회현장과 교회교육의 장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성경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 유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46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37.

47 조성국, “개혁주의기독교교육학의 이론적 과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주의기독교교육학연구』제2권(2011), 195.

48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170-185.

이와 같이 해방 전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아직 학문적으로 분화도 되지 않았고, 평양신학교에서 다루어진 교과목들도 소수에 그치는 한계를 안고는 있었지만, 당시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서 주일학교와 교회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평양신학교는 실천신학과 기독교종교교육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평양신학교의 기독교교육은 실천신학 담당 객안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실천신학 교육과정 안에 기독교교육 관련 과목들을 개설 하였고, 교사와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수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평양신학교의 기독교종교교육과정은 현대의 심화 발전된 기독교교육학 연구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럼에도 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실질적인 교과목들을 통해 당시대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기독교교육 제 현장에서 기독교교육을 가능케 하였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평양 신학교의 기독교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평양신학교의 기독교교육은 당시 목회후보생들에게 기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였고, 이는 한국 교회와 주일학교 그리고 한국사회에 기독교 복음의 전수와 교육에 기여하였다. 여기에는 객안련의 목사의 교육적 책무에 대한 범교육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 둘째로, 평양신학교의 기독교종교교육 과정은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심리학과 교육학 그리고 교육현장에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교과목들을 다루어줌으로 교육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데 기여하였다. 셋째로, 평양신학교의 기독교교육은 해방 이후 한국의 기독교교육(학)과 설치 이전에 이미 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참고문헌]

- Sherill, Lewis J.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이숙중 역. 『기독교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 강용원.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부산: 고신대학부설기독교교육연구소, 1992.
- 곽안련.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곽안련. 『주일학교교수법』. 제4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4.
- 김광수안광국 편.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71.
- 라부열. “신학교소식”. 『신학지남』8-3 (1926), 158-159.
- 박화경.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학의 형성과 발전”. 『기독교교육정보』 31 (2011), 101-131.
- 이호우.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의 목회와 신학 정신: 한국교회가 기억하는 그의 공헌과 유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식』 41 (2000), 3-12.
- 이호우. 『초기 내한 선교사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임영효채경락. “고신 실천신학 70년의 회고와 전망”. 『고신신학』 18 (2016), 243-277.
-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0.
- 정장복. “한국교회 최초의 실천신학교수 곽안련(Charles Allen Clark)의 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 『장신논단』 22 (2004), 217-241.
- 장로회신학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 정정숙. “신학지남과 한국교회의 교육”. 『신학지남』 65-1 (1998), 37-52.
- 조성국. “개혁주의기독교교육학의 이론적 과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주의기독교교육학연구』2 (2011), 179-206.
-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역사적 발전양상(1946-2016)”. 『고신신학』 18 (2016), 279-309.
- 조성국. 『기독교학교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생명의양식, 2019.

주선애. “한국기독교교육30년회고”. 『교육교회』 159 (1989), 937-953.

### 요람 및 홈페이지

<http://home.kosin.ac.kr/> 2022.1.22. 20:23접속 고신대학교홈페이지

<https://ssu.ac.kr/> 2022.1.22.18:00접속 송실대학교홈페이지

<http://www.puts.ac.kr/> 2022.1.22.18:15접속 장로회신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chongshin.ac.kr/> 2022.1.22.19:00접속 총신대학교홈페이지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경성: 조선야  
소교서회, 1916.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Seoul:  
Y. M. C. A. Press, 1928.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Seoul:  
Y. M. C. A. Press, 1931.

**[Abstract]****A Christian Education of Pyongyang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ung Soo Hong

(Kos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ristian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survey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Christian education of Pyongyang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PS hereafter) before Korea's liberation. The Christian education of Korea has been educated and studied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after Korea's liberation. Considering this point, this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al theology and Christian education first, and then discussed about Charles Allen D. Clark who was a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of PS and its curriculum of Christian education. Firstly, it is about Christian education in practical theology of PS. Charles Clark especially included some subjects of Christian education in practical theology like children education, youth ministry, pedagogy, and psychology etc. besides traditional subjects in practical theology like homiletics and pastoral theology. Secondly, it is about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This course included some various and practical subjects like storytelling, kindergarten methods, game and play etc. besides biblical subjects. In addition, it set up pedagogy and psychology and so students had opportunities to make and develop their perspectives of Christian education. Thirdly, it is about the role of PS' Christian education before it developed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PS contibuted



to Christian educational practice in that period. For this reason, PS's Christian education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part in earlier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as well as PS's theology and its theological education have had a great value in earlier theology in Korea.

**Key Words:** Pyongyang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practical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Charles Allen D. Clark, curriculum,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